

『밤티 마을 마리네 집』 독후 활동지



이금이 글 | 한지선 그림
밤티 | 200쪽 | 초등 3-4학년 | 밤티 마을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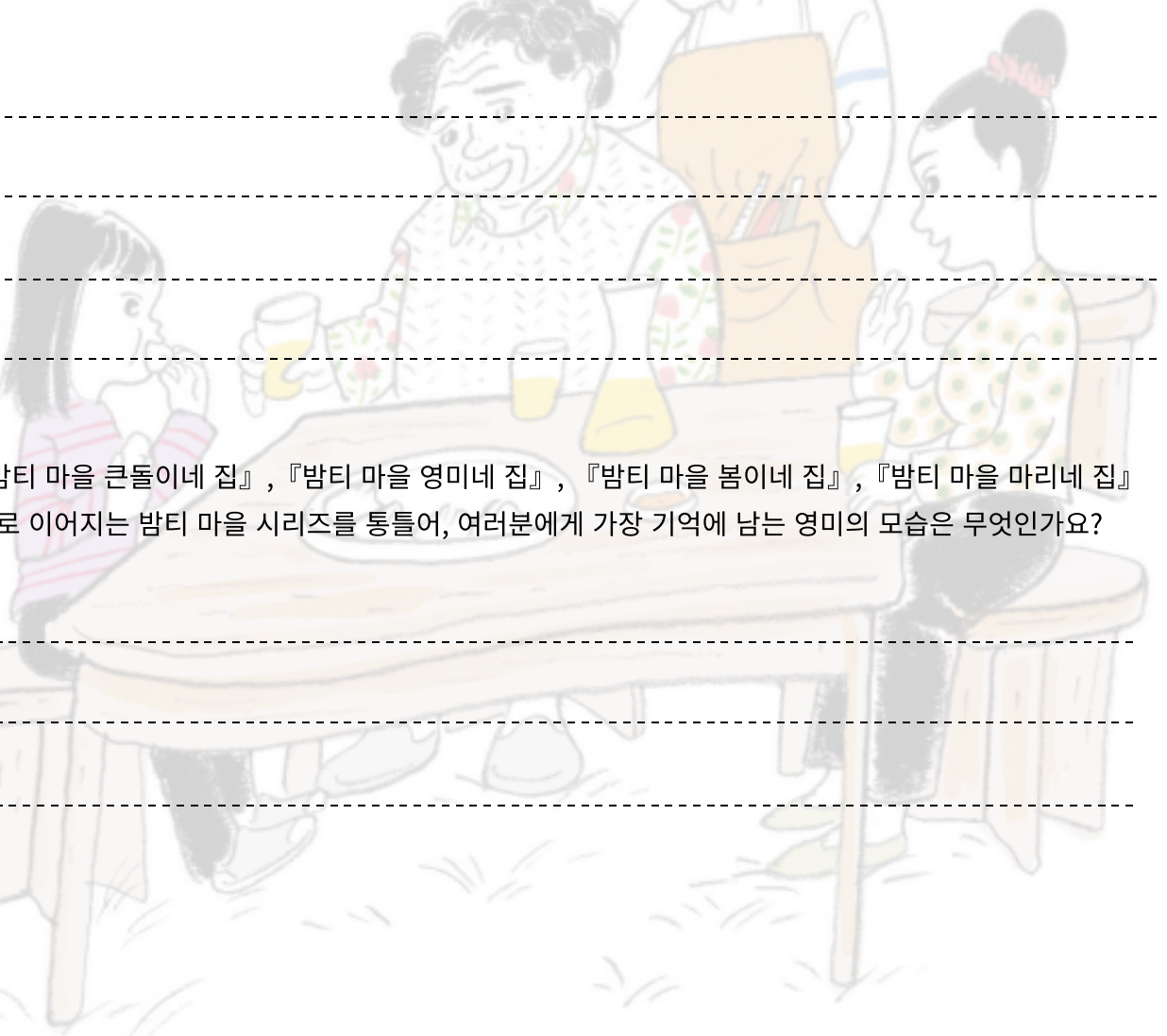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어 연결되고 확장된 ‘가족’ 이야기

”

활동 돌아온 영미

1. 『밤티 마을 마리네 집』 에는 어른이 된 영미가 등장합니다.
밤티 마을 시리즈의 독자 여러분은 어른이 된 영미를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상상한 어른이 된 영미의 모습을 써 봅시다.

2. 『밤티 마을 마리네 집』 의 어른이 된 영미가 어린 시절의 영미를 만난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어른 영미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어린 영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



3. 『밤티 마을 큰돌이네 집』, 『밤티 마을 영미네 집』, 『밤티 마을 봄이네 집』, 『밤티 마을 마리네 집』
으로 이어지는 밤티 마을 시리즈를 통틀어,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영미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활동2 우리는 어느 순간 이어져

『밤티 마을 마리네 집』 속 인물들은 때로는 단단하게, 때로는 성글게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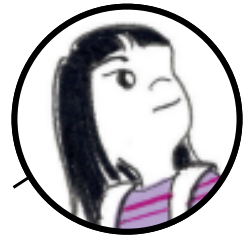
아래는 『밤티 마을 마리네 집』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관계를 생각해 보고,
 그 관계를 이루는 인물과 인물 사이를 선으로 이어보세요.
 그리고 그 인물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써 봅시다.



[팔쥐 할머니]



[진우]



[마리]



[영미 이모]



[마리 엄마]



1. (예시) 영미 이모와 마리 : 영미 이모는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마리를 멋지게 도와주고, 마리는 영미 이모가 밤티 마을 가족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 줍니다.

2.

3.

활동3 환대

마리는 학교 교문 위에 걸려 있는 아래와 같은 펼침막을 보고 '환대 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학교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학교를 지키는 모임

환대란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환대 받는 느낌이 들까요?
아래는 「환대예찬」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환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환대는 마음이면서 물질이다.
따뜻한 말로 어루만질 때는 마음이고, 필요한 음식을 가져다줄 때는 물질이다.
이처럼 환대는 빈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든 물질이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행위다."
(왕은철, 『환대 예찬』, 현대문학, 2020, 395p.)

1. 밤티 마을 사람들은 마리네 가족을 어떻게 환대해 주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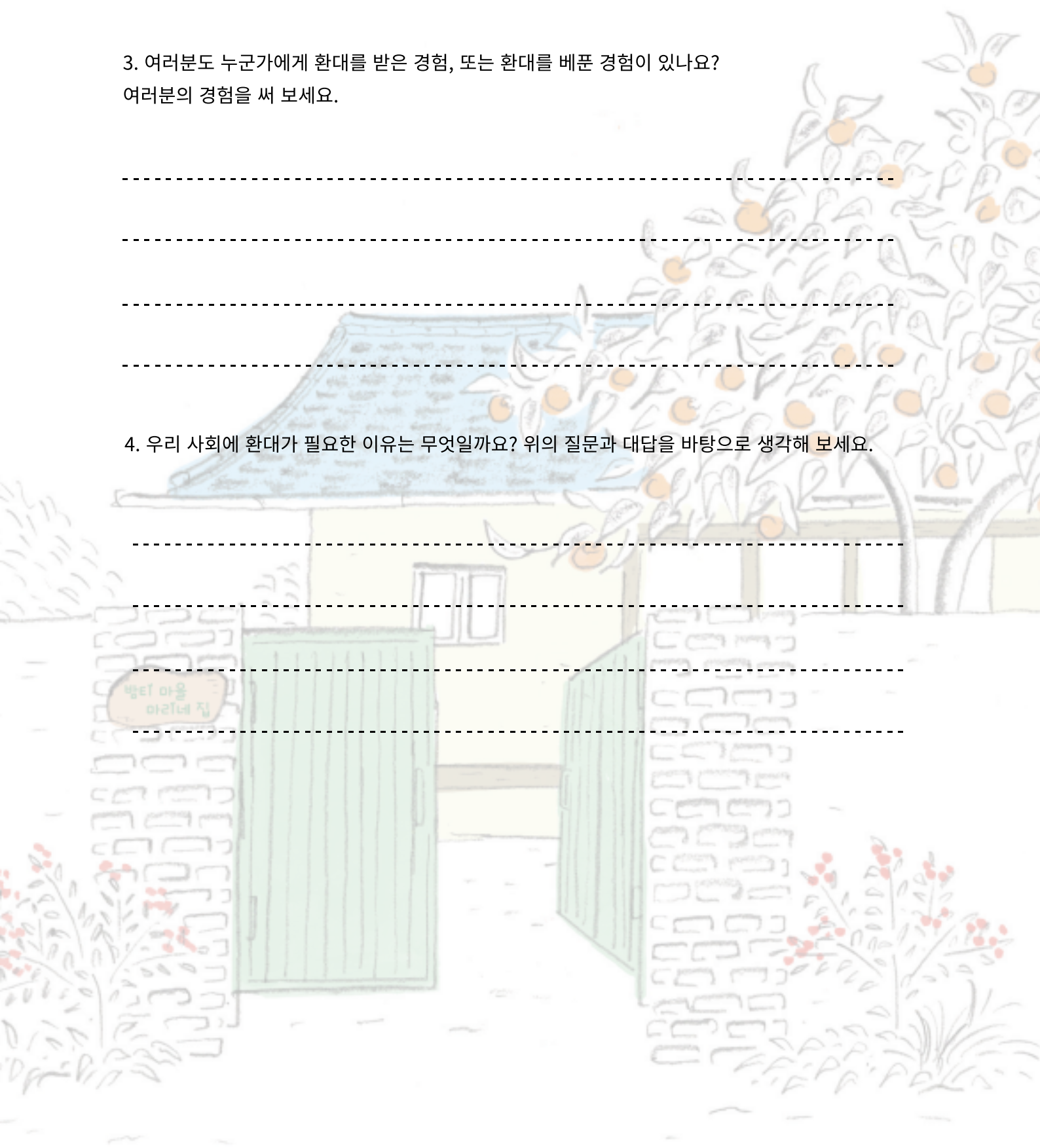
밤티 마을 사람들이 마리네 식구들에게 필요한 마음이나 물질을 주었던 장면을 찾아 아래에 써 봅시다.

(1)	영미 이모는 직접 만든 식탁과 나무 문패를 마리에게 선물했어요.
(2)	
(3)	

2. 환대가 뿌리내린 밤티 마을은 어떤 모습이 되었나요?

3.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은 경험, 또는 환대를 베푼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써 보세요.

4. 우리 사회에 환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의 질문과 대답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세요.



활동4 더불어 사는 법

마리네 가족처럼,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비율은 2023년 기준 4.89%라고 해요. 100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인 셈이지요.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공부를 하기 위해, 가정을 꾸리기 위해, 해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옵니다. 책에서 발췌한 (A), (B)와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C)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A) "그런 소리 말어. 마리 엄마고, 마리고 우리가 필요해서 와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여긴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농사도 못 짓고, 공장도 문 닫을 판이야. 학교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이사 온다고 해 줘서 우리가 외려 고맙지.

(『밤티 마을 마리네 집』 185~186 쪽)

(B) 마리는 그 순간 어째서 늘 물에 떨어진 기름방울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알았어요. 자신은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찾아온 불청객이었던 거예요. 눈치 없이 끼어 앉아선 다른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빼앗아 먹고
있었던 셈이지요.

(『밤티 마을 마리네 집』 167 쪽)

(C) 창원특례시가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최근 3년간 외국인이 약 23%나 유입되는 등 지속적인 외국인 유입에 따라 지난 1월 2일 인
구정책담당관 내 '외국인주민팀'을 신설했다.

(이상현 기자, '창원시, 외국인주민 정주화 돕는다...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경남CBS, 2024.03.12)

1. (A)와 (B)를 읽고, (B)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2. (C)를 읽고, 밑줄 친 '외국인주민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써 봅시다.

- '활동 3'에서 했던 내용들을 떠올려 봅시다.
- 마리네 가족이 한국에서 겪었던 불편함과 차별은 무엇이었나요?
- 마리네 가족에게 힘이 됐던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활동5 두 이야기가 만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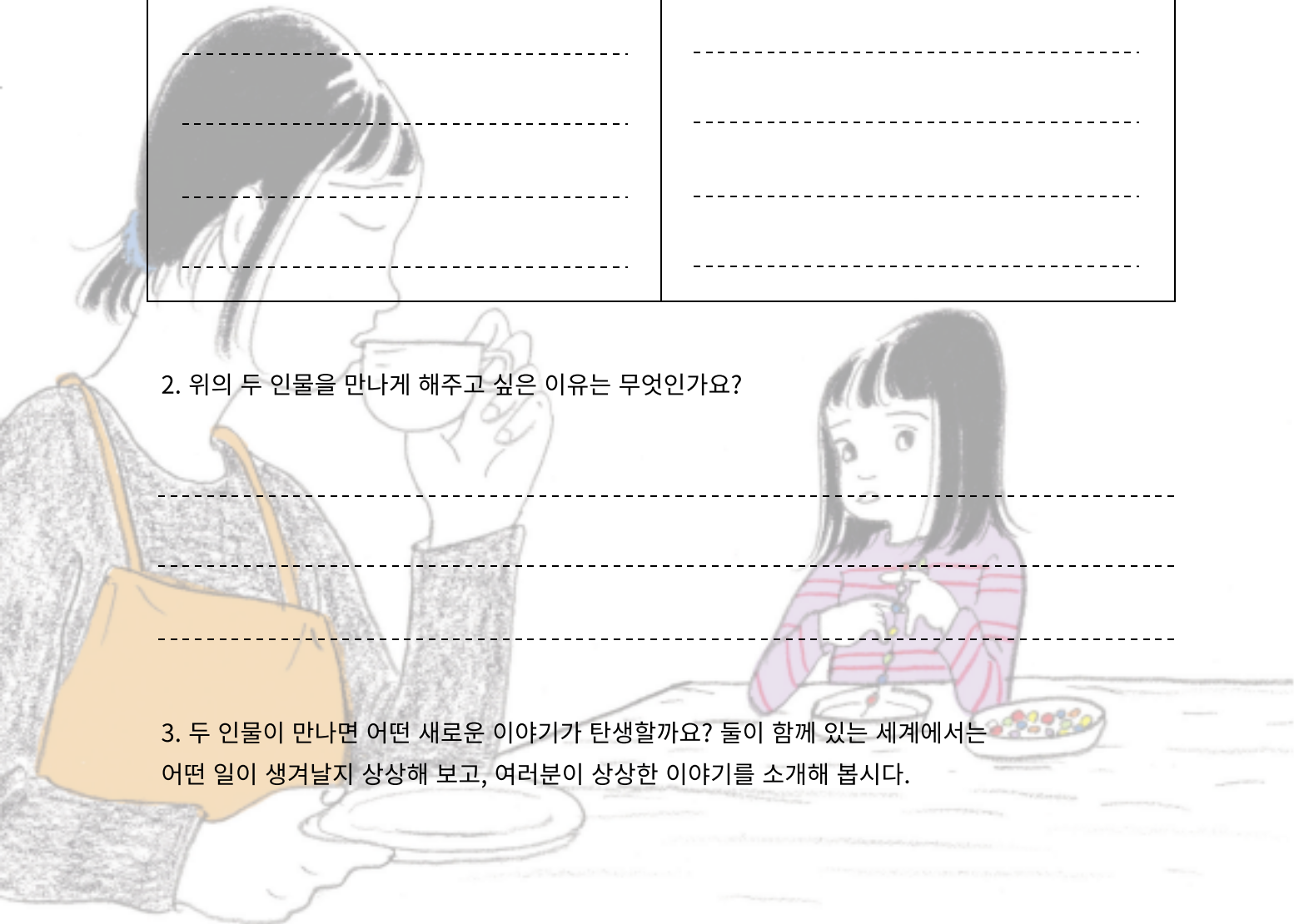
마리는 사실 작가의 마음속에 들어 있던 또 다른 이야기 속 아이였대요.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 마리와 영미는 『밤티 마을 마리네 집』를 통해 서로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지요.

1. 영미와 마리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이야기 속 두 인물을 서로 만나게 해 준다면 어떨까요?
만나게 해주고 싶은 두 인물을 꼽아 보고, 각각의 인물을 소개해 주세요.

첫번째 인물	두번째 인물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2. 위의 두 인물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두 인물이 만나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할까요? 둘이 함께 있는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날지 상상해 보고, 여러분이 상상한 이야기를 소개해 봅시다.



제목:

이야기:

